

# 본그룹 자회사 순수본 비전 선포 “본족 넘어 유동식 글로벌 1위로”

2025년 매출 1000억원 목표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 제시  
0세~100세 유동식사업 진출

“순수본은 국내와 해외 유동식 시장을 동시에 공략해 나가는 전략으로 2025년 내 1000억원의 매출 달성을 이뤄내겠습니다.”

맞춤형 유동식 생산 전문 기업 순수본이 영유아식을 시작으로 메디푸드, 시니어식 등 전 연령 프리미엄 유동식 생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향후 2025년까지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순수본은 10일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구축한 맞춤형 유동식 전문 생산·제조·판매 시설인 ‘본라이프푸드랩’에서 진행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순수본은 비전 달성을 위해 향후 2025년까지 국내외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담은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2025년까지 ▲영유아식 브랜드 ‘베이비본’을 통한 국내 이유식 시장주도 ▲메디푸드, 시니어식 등 전 연령 프리미엄 특수영양식 즉 라인업 구축 ▲유아부터 성인까지 건강관리 큐레이션 플랫폼 서비스 론칭 ▲코스닥 상장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심의 쌀 분말 수출 ▲한국 유기농 식재료 수출 ▲수출용 이유식 완제품 개발 및 수출 등의 전략을 통해 국내 최고의 맞춤형 건강유동식전문기업을 넘어 세계인의 행복한 식탁을 책임지는 식품 기업으로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프리미엄 이유식 브랜드 ‘베이비본’을 상품 출원하고 6월부터 생후 4~5개월의 준비기 10종부터 초기 28종, 중기 28종, 후기 42종, 완료가 42종, 반찬 16종 등 총 166종의 제품을 선보인다. 2019년



김용태 순수본 대표이사가 10일 전북 익산 ‘본라이프푸드랩’에서 진행된 비전 선포식에서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순수본

까지 지속적인 영유아식 제품 연구개발을 통한 전문화 및 고급화로 국내 이유식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베이비본은 이유식에서 가장 중요한 ‘물’의 차별화를 위해 ‘순수워터케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 공급되는 물의 정수 처리 과정은 1차 활성탄 여과를 거치고 마이크로 필터를 통하여 이물질 제거하고, 제품에 투입되기 전 자외선 살균기와 마이크로 필터 여과 방식을 도입해 물의 품질을 더욱 높인다. 여기에 물 감별사(워터 소물리에)의 정기 검증 및 정기적인 자체 수질 검사도 시행한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포장재와 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용기 등을 사용해 프리미엄 이유식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유식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5도 이하의 급속냉각 공정을 통해 포장한 제품을 은나노 항균 아이스팩을 함께 동봉하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 완충재를 넣어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나아가 냉장 배달 전용 상품 외에 휴대용 상품 개발을 통한 생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영유아식을 넘어 전 연령층에 대한 라인업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푸드, 시니어식 등 전 연령 프리미엄 즉 라인업을 완성하고, 생애 주기별 특수 영양식을 바탕으로 육아 고민, 건강

정보, 영양 균형과 올바른 식문화를 제공하는 ‘평생건강 지킴작 프로젝트’ 사업을 준비 중이다.

영아부터 키즈까지 맞춤형 푸드케어 서비스와 더불어 유아부터 성인까지 자신의 건강과 식단관리를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점검하고, 이에 맞는 정보를 추천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큐레이션 플랫폼 서비스도 론칭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2025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 시장의 경우, 2019년까지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국내산 프리미엄 유기농 쌀 분말을 수출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수출용 친환경 이유식 완제품 개발 및 수출과 더불어 국내산 프리미엄 이유식 식재료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태 순수본 대표이사는 “프리미엄 이유식 브랜드 ‘베이비본’을 필두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맞춤형 건강유동식전문기업으로써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수본은 ‘본족’, ‘본족&비빔밥 카페’와 ‘본도시락’, ‘본설렁탕’ 등의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와 직영 외식과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본푸드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본그룹의 자회사다.

/박인용 기자 parkin7854@metroseoul.co.kr

# ‘4월 자랑스러운 中企人’에 이호석 성지기공 대표 선정

## 중기벤처부-중기중앙회

물탱크 제조기업인 성지기공의 이호석 대표(사진)가 ‘2018년 4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뽑혔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69년 당시 보일러 회사 견습공으로 시작한 이 대표는 무궁화기계, 성지기공을 잇따라 설립하는 등 기계설비업계에 50년 가량 종사하며 성지기공을 물탱크 업계 선두기업으로 키웠다.

2010년에는 충남 서산에 제2공장을 준공, 당시 연간 169억원이던 매출을 2012년에 265억원으로 성장시켰다. 지난해 매출은 283억원을 기록했다.

이 대표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기술개발이다. 기술개발 전담부서를 통해 2011년에 보온이 가능하고 오염이 적은 PDF 판넬을 사용한 물탱크를 무용점으로 생산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물탱크 설치 기초공사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콘크리트 패드 공법을 탈피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조립식 기초 패드 공법을 개발하고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을 실현하는 등 제품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대표는 오랜 수공기간과 업종의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금속탱크공업협회동조합 이사장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지회장을 맡고 있다. 매년 5~10% 수준의 급여 인상과 성과에 따른 상여금제도를 도입해 근로자 임금인상과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등 근로자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미세먼지 해결 좋은 방법 있을까요?”

## 미세먼지 R&D 협의체 구성 국민 아이디어 공모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모은다.

정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범부처 협의체는 우선 11개 기관이 소관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R&D를 집대성한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PTR)을 공동 수립해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초 및 응용·개발 연구 간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과기혁신본부 등 R&D 예산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대학생, 대학원생, 산·학·연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등 사회 구성원의 미세먼지 R&D 관련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범부처 신규 사업을 기획해 미세먼지 연구개발이 부족한 분야나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 여의도 모습. /연합뉴스

국민 체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R&D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일반 국민은 1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연구재단·기획마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접수된 국민제안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가 실현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등을 분석해 후보군을 우선 선정하고, 후보군으로 선정된 제안자는 6월 1일로 예정된 ‘국민 참여 토론회’에서 아이디어를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대한상의 민간싱크탱크 설립 초대원장에 한은 출신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달 초 민간 싱크탱크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출범시킨다고 10일 밝혔다. 초대 원장에는 한국은행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임명됐던 서영경 전 부총재보(사진)를 위촉했다.



박용만 회장의 주도 아래 설립된 SGI는 성장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SGI는 기업들의 올바른 상황 인식을 도울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을 균형감 있게 진단하여 알리는 한편, 미래 성장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GI는 종래의 연구소가 수행해 온 거시경제 동향과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경제 아젠다’를 설정하고 근본 원인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성장과 혁신 ▲일자리 ▲고령화 대책 ▲남북 관련 아젠다 등을 주요 이니셔티브로 설정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 이사라 교수, 골반저초음파 검사 노하우 발표

###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이대목동병원은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사진)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춘계연수강좌에서 ‘경회음부초음파검사’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골반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골반저초음파검사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이사라 교수는 2015년 ‘임상 골반저초음파검사, 기초에서 응용까지’를 공동 번역, 출판하는 등 골반저 초음파 분야 전문가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골반장기탈출증과 요실금 등 다양한 골반저질환의 진단에 쓰이는 골반저초음파검사는 배변 조영술, 자기공명촬영(MRI) 등 기존 검사 기법들에 비해 방사선 피폭이 없으며 검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외래에서 바로 정적, 동적 검사가 가능하고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사라 교수는 이날 연수강좌에서 요실금 수술 후 증상이 재발하거나 오히려 질박노가 심해져 병원으로 오는 환자들에서 골반저초음파검사로 원인을 밝혀 정확한 수술 전 진단을 통한 성공적인 재수술로 치료한 증례들을 발표했다.

또한 골반장기탈출증의 다구획 결손을 골반저초음파검사로 정확히 진단한 사례, 다른 병원에서는 원인 모를 성교통을 동반한 골반장기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가 골반저초음파검사를 통해 요도계실이 원인임을 밝혀 수술로 치료한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요도계실 진단에 따른 골반저초음파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사례는 2017년 10월 미국산부인과학회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박인용 기자



허일섭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이사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GC녹십자와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이 경기도 용인 GC녹십자 R&D센터 WEGO강당에서 열린 창립 34주년 기념식 후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GC녹십자

## 34주년 목암생명과학 “글로벌 연구소 도약”

### GC녹십자 R&D센터서 기념식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C녹십자 R&D센터 WEGO 강당에서 창립 34주년 기념식을 갖고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연구소로의 도약을 다짐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일섭 이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좋은 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과정이

멀고도 험하지만 머지 않아 모든 연구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승현 소장을 중심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뛰어난 연구성과를 나타낸 우수연구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